

# ‘한국 육상의 미래’ 양예빈, 전남체고에 새 등지

### 체계적 훈련 위해 지난 8월 전학...전학 규정에 전국체전 출전 못해 소년체전서 압도적 질주 등 신기록 세우며 ‘차세대 스타’로 떠올라 명장 문봉기 감독이 지도...양예빈 “세계무대에서 꿈 이루도록 최선”

한국 육상 여자 단거리 차세대 스타 양예빈(17)이 전남체고로 등지를 옮겨 꿈을 키우고 있다.

7일 전남체고에 따르면 양예빈은 지난 8월 전남체육고등학교로 전학한 뒤 문봉기 육상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하고 있다. 충남 계룡중학교를 거쳐 용남고등학교에 다니던 양예빈은 미래를 위해 학교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향을 등지고 전남체고로 전학오는 데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강력한 희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계 명장인 문봉기 전남체고 육상감독의 영향도 컸다. 문 감독은 2009년 광주우 아시안게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총감독을 지냈고 현재 대한육상경기연맹 우수선수육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엘리트 체육학교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강점도 작용했다. 전남체고는 육상 단거리부문에 스포츠센터로 꼽히는 명문인데다 자체 재활훈련 시스템은 물론 전남체육회 스포츠 과학센터 등 전문적인 선수관리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문 감독은 “차세대 스타가 전남체고에 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면서 “양예빈은 물론 전남체고 선수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성장해 대한민국 최고 선수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빈은 워낙 자기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고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어도 손색 없을 것”이라며 “진화력이 뛰어나 전학와서도 팀 적응도 빠르고 훈련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예빈은 전학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올해 전국체전에 나서지 못한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 7월, 55초29의 400m 한국 여자 중학생 기록을 세웠다. 1990년 6월 김동숙(당시 성보중)이 작성했던 여중부 최고기록 55초60을 0.31초 단축했다.

양예빈의 기록은 한국 성인 역대 기록보다 11위에 해당한다. 2003년 8월 이윤경이 세운

한국 신기록 53초67과는 1.62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신다혜(김포시청)가 세운 2019년 기록 55초19에는 0.1초 차로 접근했다.

양예빈은 2019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여중부 3관왕(200m·400m·1600m 계주)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계주에서 50m 차이를 뒤집고 우승을 이끄는 등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의 활약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550만회를 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멀리뛰기로 육상에 입문한 양예빈은 중1 때 단거리인 200m·400m로 종목을 바꾼 지 2년도 안 돼 한국 육상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고교 진학 후에는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56초대 기록을 내며, 실업팀 선수들과도 경쟁하고 있다.

문 감독은 “양예빈이 부상 때문에 기록이 주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량과 기술적인 면 보다는 어린 나이에 스타로 주목받다보니 정신적인 부담이 컸던 것 같다”며 “오히려 용기를 북돋우는 등 심리관리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양예빈은 회복과 훈련을 병행하며 다음 시즌을 준비할 전망이다.

양예빈은 “고향에서 전학으로 학교를 옮긴 만큼 세계무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8월 전남체고로 전학한 차세대 육상 스타 양예빈.

## 광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휩쓸었다

### 김재현·김유은 2관왕 등 금 4·은 1·동 1 수확

광주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종목에 휩쓸었다.

광주시 장애학생 육상선수단 15명(선수 9명, 감독 등 6명)은 지난 5-7일 전북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육상 종목 메달 6개(금4, 은1, 동1)를 수확했다.

김재현(세광학교)은 남자 100m T11-T12(중·고)에서 14초61로 1위를 차지하고, 남자 200m T11-T12(중·고)에서도 30초32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유은(건국초6)은 육상트랙 여자 100m DB(청각·초등부)에서 15초04, 여자 200m DB(청각·초등부)에서 30초08을 기록해 두 종목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박보희(광주선명)는 여자 원반던지기 F20(고)에서 14m77 기록으로 은메달을, 주혜숙(광주선명)은 여자 200m T20(고)에서 39초15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범 종목에 단독 출전해 비록 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지만, 성인 못지 않는 기량을 선보인 이들도 있었다.

김지혜(광주여고1)는 여자 원반던지기 F13(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 종목에 참가한 광주시 선수단.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각)과 여자 포환던지기 F13(시각)에서 각각 18m22와 5m77을 기록했다. 이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원반던지기 F13(시각·선수부)의 2위 기록(15m81), 여자 포환던지기 F13(시각·선수부) 1위 기록(5m59)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선정(상무중2)은 여자 100m T13(시각·중등부) 및 여자 200m T13(시각·중등부)에 출전해

각각 17초30, 36초80 기록을 남겼다. 이 또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100m T13(시각·선수부) 2위 기록(17초69)과 여자 200m T13(시각·선수부) 2위 기록(38초16)을 웃돈다.

김지혜·김선정은 자매 사이로, 현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S등급)로 선정된 김전천(육상)의 동생이다. /연협재 기자 yjyou@

## 부산서 개최 LPGA대회 고진영·김세영 등 출전

### 21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1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7일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주요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고진영(26), 박인비(33), 김세영(28), 김효주

(26)가 모두 나온다.

올해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고진영은 9월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김효주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션얼 정상에 올랐다. 또 박인비는 이달 초 끝난 LPGA 투어 슬라이트 클래식에서 고진영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다.

고교 선수들이던 대니얼 강(미국), 이민지(호

주),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박성현(28)은 초청 선수로 나와 이번 주 KLPGA 투어 하이진즈 챔피언십에 이어 모처럼 국내에서 대회 출전을 이어간다.

현재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통산 198승을 달성해 200승 고지 등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선수들의 LPGA 투어 통산 200승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는 초청 선수 4명을 포함한 84명이 출전하며 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 규모로 대회가 펼쳐진다. /연협뉴스

## 한국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임 코치 체제로 베이징올림픽 치른다

### 빙상연맹 “기준에 맞는 감독 없어”

동계올림픽의 핵심 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감독 없이 전임 코치 체제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치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지난 5일 “그동안 대표팀을 이끌 신입 감독을 선발하려 했지만, 기준에 맞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감독직을 공식으로 두고 전임 코치 체제로 2021-2022 시즌 국제대회와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안중현(38), 김병준(33·이상 남자 대표팀), 이영석(41), 이소희(33·이상 여자 대표팀) 코치가 맡는다.

가장 경력이 많은 이영석 코치는 선임 코치를 맡아 대표팀 전체를 관리한다.

이영석 코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쇼트트랙 대표선수 코치,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쇼트트랙 후보선수 코치를 역임했다.

이소희 코치는 2017년 쇼트트랙 후보선수 코치 직을 맡은 바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김형호(43) 코치와 박정은 코치(45)가 지휘한다.

김형호 코치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빙속 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빙상계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팀을 지휘해야 할 총책임자가 없는 데다 올림픽을 치르려면 코치들의 경험이 대체로 쪼다는

지적이다.

특히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최대 경쟁국으로 꼽히는 개최국 중국은 최근 한국 출신 쇼트트랙 지도자를 대거 영입해 다양한 작전과 기술을 접목했다.

중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지휘한 김선태 감독을 총감독으로 영입한 뒤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을 코치로 선임했다.

연맹 관계자는 국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우리 지도자들은 모두 지도력이 검증된 코치진”이라며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선수 인권을 중시하고, 한국 빙상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내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빙상 대표팀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혐의 등 인권 침해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썩썩, 파벌 싸움, 선수단 관리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오르기도 했다.

이에 연맹은 각종 폭력 행위는 물론, 선수단 관리 부주의 등 각종 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를 모두 탈락시켰다.

관계자는 “해당 기준에 합당한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며 “연맹은 젊은 전임 지도자로 코치진을 꾸리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 올림픽을 치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협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2관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3관	부니베아: 애들이 줄었어요
3관	가적
4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5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5관	매직 스퀘어: 초보마법사 아우라의 대모험
6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보이스
7관 씨네커를	상자와 텐 링즈의 진실 국영환 황는 뽀얏! 격렬!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후원 스틸워터, 캔디맨
8관 씨네커를	용과 주근깨 공주, 수색자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수시공연  
**영탈과 그레텔**  
일시 : 2021.10.22.(금) ~ 10.23.(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412-2507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10. 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